

2·28민주운동의 기억과 기념 방식

박 승 희*

- I. 2·28민주운동의 기억과 기념
- II. 2·28민주운동과 기억의 동시대성
- III. 2·28민주운동과 기억의 서사
- IV. 2·28민주운동의 기념 방식, 기억의 공유
- V. 결론

국문초록

본 논문은 2·28민주운동에 대한 새로운 기념 방식을 제안한 것이다. 기념이란 역사를 공적으로 기억하고, 이를 통해 우리 시대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문화 기획이다. 2·28운동에 대한 기념 또한, 1960년 2월 28일의 역사를 多衆이 기억하도록 전략적으로 재구성한 문화적 행위이다.

2·28민주운동 기념회관 등 현재의 2·28 기념 콘텐츠는 전통적 메모리얼 방식에 가깝다. 근대 이후 메모리얼의 전형적인 기념 방식은 기념비나 기념탑, 조형물, 상징 문구 등 시각적 상징물을 통해 사건과 특정 인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bround33@ynu.ac.kr

** 본고는 2020년 『2·28민주운동 60주년 기념 학술대회-2·28민주운동 결의문과 구호에 나타난 2·28민주운동의 정신과 의미』에서 발표한 「2·28민주운동의 기억과 기념 방식」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혀둔다.

물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는 사건의 역사성을 홍보하는 한편, 이를 근거로 하는 특정 권력 이미지를 선전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2·28운동의 가치는 민주주의와 정의를 향한 학생들의 저항에 있다. 결코 역사적 성전이나 영웅 서사가 아니다. 말 그대로 정의를 향한 학생들의 저항이 2·28의 정신이다. 그런 의미에서 2·28민주운동의 기념 방식 또한 기존의 메모리얼을 방식을 넘어 기억의 역사화를 위한 새로운 기념 방식이 필요하다. 즉 기억의 동시대성과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기억의 공유를 기획해야 한다. 따라서 2·28에 대한 기념은 역사적 기억을 호명하는 우리 시대의 가치, 즉 정의의 기념이어야 한다.

2·28민주운동의 기념 방식은 2·28을 관람하거나 기념하는 사람들이 스스로가 구성하거나 재현하는 참여자 중심의 공유 방식이 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전제 위에 2·28운동의 기념 공간 및 집단 지성 콘텐츠, 관람자 중심 전시 콘텐츠와 디지털 프로그램 등을 제안한 것이다.

◆ 주제어

2·28민주운동, 기억, 기념 방식, 정의 콘텐츠, 관람객, 공유

I. 2·28민주운동의 기억과 기념

2·28민주운동 기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다.¹⁾ 한국 민주주의 운동사의 일부가 된 것이다. 2·28민주운동의 역사와 가치에 대한 조사와 기록, 연구 및 宣揚의 성과라 할 수 있다. 다만, 역사의 의미화는 역사적 소재를 테제(thesis)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비롯되다는 점에서 2·28민주운동은 여전히 우리들의 주제이자 과제로 남아 있다.

2·28민주운동은 운동의 규모와 지속성, 주체의 조직 역량과 치열성 등을 고려할 때 소박한 운동²⁾이라 평가된 바 있다. 그러므로 2·28운동이 한국 민주주의 운동의 先導性을 상징하는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역사적 의미화를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2·28민주운동의 역사적 재현과 민주주의적 지평, 운동의 선도성과 한계에 대한 깊은 성찰과 연구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2·28민주운동의 연구 성과를 담고 있는 계간 햇불지는 2·28 연구의 방향과 성격을 마련하는 토대가 되고 있다. 특히, 2015년 햇불지 기념 좌담에서 기억 연구라는 과제를 제안한 것은 특별하다. 좌담에서는 기억의 저장과 함께 의미의 재구성, 시민적 공유³⁾를 기억 연구의 주요 과제로 제시함으로써 2·28운동의 연구 방향을 구체화하였다.

기억의 저장과 재구성, 그리고 시민적 공유란 기억의 다양성에 기초한다. 즉 2·28운동에 대한 다양한 기억을 모으고 이에 대한 다면적 해석과 다층적 공유에 기초한다. 2·28의 기억을 저장하는 대표적인 일은 2·28민주운동의 참여 주체들의 증언 수집일 것이다. 햇불 지를 통해 부분적으로 소개된 바 있지만, 2016년의 구술 증언 사업으로 수집된 22인

1) 2018년 2월 6일, 정부에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 개정안’을 공포함으로써 2·28민주운동 기념일이 국가 기념일로 확정되었다.

2) 김태일, 『2·28민주운동 아카이브 구축사업 보고서』,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2016. 6쪽

3) 김태일, 「2·28 햇불 60호 발행기념 좌담회」, 『햇불』 60호, 2·28민주운동 기념사업회, 2015, 29쪽.

운동 주역들의 기억 증언 사업 등은 2·28운동에 대한 직접적인 기억의 저장이라 할 수 있다.⁴⁾ 증언은 개인 생애를 중심으로 2·28운동의 참여자로서의 기억의 조각을 모은 것이다. 그러나 기억의 저장은 직접적인 목소리와 함께 2·28을 통한 시대 지평에 대한 다양한 기억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기억 사업의 목적은 개별 기억의 파편을 모아 역사적 사건을 재구성하는 일이다. 그러나 기억의 조각을 조합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역사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기억의 조각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기억 조각이 지닌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기억의 다양성은 기억을 다면적으로 재구성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기억의 조각으로 역사를 획일적으로 구성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22인의 기억 조각을 통해 하나의 2·28을 재구성하기보다 기억의 파편과 조각이 내장한 기억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기억의 역사성을 구축하는 진정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특정 인물의 기억만을 신화화하거나 상징화하는 기억의 왜곡을 막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나아가 기억의 다양성은 2·28에 대한 우리 시대 이해의 다양성을 형성하는 기초가 된다.

한편, 기억은 기념의 자료이자 기념의 방식이 된다. 기억은 과거와 현재를 매개함으로써 우리 시대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사회적 토대가 된다. 사회적 정체성은 기억과 현재의 연관 속에서 구성되며, 개인의 정체성은 이렇게 구축된 집단적 정체성을 참조한다.⁵⁾ 그러므로 기억에 대한 논의는 집단적 정체성의 사회적 의미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근대 이후 국가는 민족이라는 개념을 통해 구성원들을 결속 및 구속하면서 민족 내부의 이질적 특성들을 배제하였는데, 이는 특정한 방식으로 구성된 기억을 강요하는 과정을 통해 진행된 바가 있다.⁶⁾ 이러한 기억

4)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2·28민주운동 아카이브 구축사업-22인의 경험과 기억』, 2016.

5) Cuche, D. 『La notion de culture dans les sciences sociales』, 2004. 이은령 역, 『사회과학에서의 문화 개념』. 서울:한울. 2009, 41쪽.

6) Butler, J. & Spivak, G. 2009, 주해연 역, 『누가 민족국가를 노래하는가』, 서울: 산책자, 2008.

의 사회적 기능은 문화적 형식을 통해 구체화 된다. 즉 기념의 방식을 통해 실현된다. 특히 18세기 근대국가의 출현 이후, 기념물, 기념일, 기념관, 백과사전, 고문서 제도, 도서관, 박물관 등이 국가에 의해 관리되면서 기억의 현시적 구성체들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⁷⁾ 기억을 통한 기념 방식은 이러한 사회적 정체성을 구축하거나 표현하는 문화적 상징 행위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기념관은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기억과 현재의 연관 속에서 집단적 정체성이 구축되는 사회적 공간이다. 즉 기억을 토대로 하는 사회적 기관이자 제도로서의 기념관인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2·28기념공간은 1960년 2월 28일의 역사를 사회적 多衆이 기억하도록 전략적으로 재구성한 문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2·28민주운동 기념사업 또한 1960년 2월 28일을 기억하는 문화적 집단 상징 행위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기억의 기념이란 행위가 ‘모두 잊지 말고 다 함께 그때를 기억하자’는 목적을 전제한 것이라면, 기념사업은 대중적 기억을 의도적으로 구성하는 문화적 행위를 의미한다. 기념은 공적으로 역사를 기억하고, 이를 통해 집단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사회문화적 가치를 강조하는 기획이라 할 수 있다. 주어진 시공간에 특정한 방식으로 재구성하는 사회적 기억 행위인 것이다. 그러므로 2·28민주운동 기념사업은 1960년 2월 28일에 대한 기억을 재료로 하여 일정한 시공간에 펼쳐진 콘텐츠를 통해 특정한 인식이 실현되도록 기획한 문화적 상징 행위라 할 수 있다.

특히, 기념 콘텐츠는 대부분 기억의 전시 콘텐츠를 통해 구현된다. ‘2·28민주운동기념회관’(이하 2·28기념회관)은 2·28민주운동을 기념하는 대표적인 공간이다. 1960년 2월 28일, 정치적 강압과 독재에 저항하며 민주주의를 주창한 학생 지성들의 역사를 기념하는 문화 공간이다.

공적 기억이 특별한 문화적 형식인 기념관을 통해 재현될 때, 그 재현

7) 신주백 「역사교과서에서 재현된 8·15, 망각된 8·15」, 2006, 정근식·신주백(편), 『8·15의 기억과 동아시아적 지평』, 서울: 선인, 27~70쪽. 태지호, 『독립기념관에 나타난 독립의 기억과 그 재현 방식에 관한 연구』, 2013, 146쪽 재인용.

의 방식은 전략적일 수밖에 없다. 과거의 역사가 기억을 통해 현재화되는 과정 속에서 역사는 부분적으로 배제되거나 강조되며, 심지어 변형되기 때문이다.⁸⁾ 2·28기념회관은 2·28민주운동을 집단적으로 기억하는 현장으로서 2·28운동을 기념하는 전략적 판단에 의해 구성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2·28기념회관의 전시 콘텐츠 전략은 2·28민주운동의 선도성에 맞춰져 있다. 이는 기념관의 주요 공간에 펼쳐진 전시 컷셋과 전시 형태 및 구조, 전시 자료들을 통해 쉽게 확인된다. 2·28기념회관의 1층 전면에 제시된 햇불 조형이나 ‘민주운동의 문을 열다’ 등의 문구는 운동의 선도성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리고 선언문의 일부인 ‘촛불이 다시 켜지는 날, 너는 동방의 빛이 되리라’라는 문구 또한 당시 운동의 주체가 학생들의 선도적인 역할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교복 입은 학생들의 동상과 참여 고등학교에 대한 소개 등은 운동의 주체가 고등학생이란 점을 특히 강조함으로써 운동의 순수성과 선도적 이미지를 극적으로 연출하고 있다. 또한 전시 벽면에 운동의 전개 과정과 당시 시위 구호 등을 배열한 것은 그날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운동의 현장감을 살리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2·28기념회관의 전시 콘텐츠는 전통적 메모리얼⁹⁾ 방식으로 구축되어 있다. 근대 이후 메모리얼의 전형적인 기념 방식은 기념비나 기념탑, 조형물, 상징 문구 등 시각적 상징물을 통해 사건과 특정 인물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는 사건의 역사성을 홍보하는 한편, 이를 근거로 특정 사회 권력을 이미지화하는 자원으로 활용되어 왔다. 즉, 역사적 사건과 현재의 사회적 권력을 동일시하거나 정당화하는 방식이 되었다. 다시 말해 전통적 메모리얼 방식은 지역이나 집단의 상징적 권력 체계를 구축하려는 전략적 목적이 내재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메모리얼 관람자는

8) 김기봉 『 역사를 통한 동아시아 공동체 만들기』, 서울: 푸른역사, 2006.

9) 메모리얼은 일반적으로 예술적 표현 수단을 통해 공동체의 이상이나 초월적인 가치를 반영하는 사건이나 인물을 기억하기 위한 장소를 의미한다. 문은미, 「관람자 체험을 고려한 메모리얼의 공간 표현 특성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1집, 2012, 373쪽.

자연히 기념 공간에 대한 신성화 내지 성전화 이미지를 전제한 뒤 관람에 참여하게 된다. 기념관이나 박물관 입구에서 전시물들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절대 진리를 만난 듯 경건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관람자들의 장면은 그 증거로 충분하다.

그러나 시민혁명과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홀로코스트와 같은 대량살상 사건들은 전형적인 메모리얼 형태 언어로는 의미를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¹⁰⁾ 따라서 관람객을 초대하고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새로운 메모리얼 방식이 등장했다. 관람객의 일방적이고 수동적인 관계 설정에 전환이 일어난 것이다. 자연히 새로운 메모리얼 방식은 관람객들의 개입과 참여를 통해서 구성되고 재창조되는 지속적인 기억의 과정¹¹⁾이자 공간으로 등장하게 된다. 관람객들은 구경꾼이나 방관자가 아니라 물리적, 정서적으로 개입하여 메모리얼을 완성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제 메모리얼은 관람객들에게 기념대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관람객들이 스스로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유형의 체험을 제공하는 공간이 된다. 결국 관람객들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일련의 체험 과정을 통해 메모리얼의 의미에 접근하고 감성을 공유하게 된다.¹²⁾

그러나 2·28기념회관의 동방의 빛과 햇불, 결의에 찬 학생들의 동상은 일종의 역사적 사건의 신화적 이미지 전략에 가깝다. 2·28 결의문 등에 담긴 민주주의와 정의를 향한 학생 지성들의 결의는 결코 역사적 성전도 영웅의 서사도 아니다. 말 그대로 정의를 향한 학생 지성의 순수한 저항이었다. 또한, 2·28민주운동을 기념하는 이유는 바로 이 학생들의 정의를 우리 시대에 공유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2·28민주운동 또한 기존의 메모리얼을 방식을 넘어 기억의 의미화를 위한 새로운 기념 방식이 필요하다.

10) 문은미, 앞의 논문, 372쪽.

11) Rodrigo, Russell, 「Spatializing Memory: Bodily Performance and Minimalist Aesthetics in Memorial Space」, 『The Australian Council of University Art and Design Schools』, 2009

12) 문은미, 앞의 논문, 373쪽.

II. 2·28민주운동과 기억의 동시대성

기억 연구자들에 의하면, 기억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집단적·사회적·정치적 특성을 지닌 인식체계의 하나이다. 특히 집단 기억(collective memory)은 특정 공동체의 사회적 틀에 의해 구성되면서 동시에 공동체의 존재를 가능하게 한다¹³⁾고 한다 “내가 소속된 집단은 언제든지 기억을 재구성할 수 있는 수단을 내게 주기 때문”이다.¹⁴⁾ 다시 말해 집단 기억은 사회적 구성물로서 문서, 구술, 이미지, 행위, 공간 등 다양한 매개체로 기록·변형되고, 공유·전송되며 기념·재현된다.¹⁵⁾ 매개체 가운데 공간 또는 장소는 상대적으로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뿐만 아니라 가시적인 다양한 상징과 의례들을 통해 기억의 사회성·집단성·객관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¹⁶⁾ 즉 기억의 공간은 기억하고자 하는 사건, 인물, 물체 등을 선택적으로 재현함으로써 대상에 대한 기억과 그 기억이 불러일으키는 다양한 정치적·사회적 실천에 영향을 미치도록 디자인된 공간이다. 즉 전략적 공간 기획을 통해 과거의 시간은 구체적인 의미를 부여받게 되고, 공간에서 만나는 타자와의 공유를 통해, 개인적 기억은 객관성과 집단성을 획득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공간의 기념 장치는 집단 기억을 “‘기록’하고 ‘각인’시킨다.”¹⁷⁾

기억의 공간은 집단 기억의 형성과 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재료를 제공한다. 공적·집합적 기억의 공간을 대표하는 것은 박물관, 기념관,

13) Maurice Halbwachs, 『La topographie légendaire des évangiles en terre sainte: Etude de mémoire collective; Les cadres sociaux de la mémoire』, Lewis A. Coser. trans., On Collective Memory, Chicago, IL: 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Original work published in 1941, 1952).

14) 한지은, 「타이완에서 장소를 둘러싼 정체성과 기억의 정치」, 『문화역사지리』 제26권 제2호, 2014, 106쪽에서 재인용.

15) P. Burke, “History as social memory”, in T. Butler, ed., Memory: History, Culture and the Mind, New York: Basil Blackwell, 1989, 77~96쪽.

16) 한지은, 앞의 논문.

17) 정근식, 「기억의 문화, 기념물과 역사교육」, 『역사교육』 제97집, 2006, 282쪽.

기념물 등이다. 이러한 공간은 과거의 사건, 인물, 혹은 사물(박물) 등을 재현함으로써 현재의 관람자로 하여금 과거와의 연결 고리를 찾거나 호명함으로써 관람객 자신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친다.

과거 재현에 대한 연구 중 특히 주목되는 것은 재현하고자 하는 가치와 방식은 무엇이고 수용자의 관점에서 그 효과는 어떠한가 하는 것이다.¹⁸⁾ 그것은 곧 기념되는 것들의 사회적 의미를 다시 살피고 시공간적 맥락에 따라 과거를 재구성하는 목적을 찾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2·28민주운동은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 그리고 현재의 수용자나 관람자는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것인가.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2·28민주운동과 현재의 삶을 연결하는 가치로서의 2·28운동을 재발견하고, 그 가치를 중심으로 지금의 삶을 위한 의미를 2·28민주운동에서 확보해야 한다.

선언문과 결의문, 비문과 시, 구호 등 2·28민주운동의 자료들은 2·28운동의 가치와 정신이 담긴 상징 언어들이다. 이 언어자료들은 그 자체로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 것이지만, 그 속에는 2·28운동의 정신이 집적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자료들을 그냥 전시용 박물 자료로만 사용하는 것은 2·28운동에 대한 1차적인 이해일 뿐이다. 현재의 삶과 연결된 가치의 재창출 혹은 문화적 재인식 등이 이 언어자료들이 지닌 진정한 가치일 수 있다. 그러므로 2·28 언어자료들의 동시대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2·28민주운동 자료는 2·28운동에 대한 인문적 가치를 보여주는 원재료들이다. 인문학은 본시 인간의 사유와 습속, 문화 양식 등을 정립하는 학문으로써 삶의 현장에서 실현되는 인간의 종합적인 가치문제를 핵심으로 한다. 2·28민주운동 자료들은 2·28의 현장에서 담아낸 2·28정신의 상징 언어들이다. 또한 우리 시대 삶의 가치와 연결된 증거들이다. 그러므로 2·28민주운동 자료를 기반으로 우리 시대로 이어지는 2·28운동의 정신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이 자료들은 역사적 기억을 호명하는

18) 태지호·정현주, 「중국의 향미원조기념관을 통해서 본 한국전쟁의 기억과 정치적 함의」, 『한국정치학회보』 제48집 제4호, 2014, 297~317쪽.

원 소스가 될 수 있다. 우리 시대와 연결된 집단 기억의 원형들이 2·28 운동의 자료인 것이다. 이 기억의 원형들은 우리 시대가 호명해야 할 운동의 정신이라 할 수 있다.

2·28민주운동 자료에 담긴 기억의 원형이자 정신은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이다.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당대의 구체적인 인식들이다. 2·28 결의문에서 주창하는 다음의 두 표현은 민주주의에 대한 당위와 함께 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을 보여준다. “이번 일을 정치에 관계없이 주위 사회에 자극받지 않는 책냄새 땀냄새 촛불 꺼떻게 앉은 순결한 이성으로써 우리의 지금까지 배운 지식을 밀바탕으로 하여 일장의 궤기를 하려 한다.”, “정의에 배반되는 불의를 처부수기 위해서는 이 목숨이 다할 때까지 투쟁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백”¹⁹⁾, 결의문의 두 표현은 ‘청년 지성’과 ‘정의’의 가치를 분명히 강조하고 있다. 1960년대 한국의 정치 지형 속에서 강조된 ‘청년 지성의 정의’는 민주주의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고등학생들의 목소리로 직접 표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2·28민주운동의 주체인 당대 청년 지성의 목소리는 지금 우리 시대 청년들을 호명하는 감각이자 실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결의문에 담긴 목소리는 1960년 2·28운동에 대한 기억의 연결고리라 할 수 있다. 곧 정의의 실현은 2·28운동과 현재를 이어주는 기억의 핵심 내용이며 가치인 것이다. 정리하면 결의문에서 청년 지성이 선언한 정의의 가치는 2·28운동에 대한 기억의 핵심이며, 지금 우리 시대의 핵심 가치이기도 한 것이다. 기억의 동시대성은 가치의 동시대성이며,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기억의 공유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 그러므로 2·28운동에 대한 기념은 정의에 대한 기억을 호명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의에 대한 기억의 서사를 우선 구성해야 한다.

19) 하청일, 『2·28민주운동 결의문』,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Ⅲ. 2·28민주운동과 기억의 서사

2·28민주운동을 기념하기 위해서는 우선 2·28민주운동에 대한 기억의 서사를 만들어야 한다. 서사는 가장 대중적인 공유의 방식이며 역사적 가치를 입체적으로 재구성하는 사회인지적 언어활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사에 대한 기억의 서사는 역사적 기억을 가장 대중적인 방식으로 구성한 것이다. 서사는 기본적으로 사건과 인물, 그리고 역사적 배경과 사회문화적 지평 속에서 구성된다. 그러므로 기억의 서사는 역사적 배경이나 실제 속에서 전개되는 사건의 재구성을 통해 현재의 가치를 재발견하거나 구현하는 일이다.

2·28민주운동의 기억 서사는 무엇인가. 다시 말해 2·28운동의 정신을 지금 재구성하는 서사의 핵심은 무엇인가. 앞서 2·28 결의문에서 확인한 바처럼, 그것은 당대 고등학생들이 선언한 집단 지성들의 정의 실현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런 의미에서 2·28운동의 기억 서사는 1960년대 전후의 사회문화적 지평 속에서 2·28운동의 정신을 실천한 당대의 인물들, 즉 청년 지성들의 실체에 관한 이야기가 주요 레퍼토리이다. 그리고 2·28민주운동의 현장이었던 1960년 대구라는 지역 이야기가 또 다른 2·28의 기억 서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1960년 대구라는 지평 위에서 펼쳐진 정의의 실천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는 민주주의 운동사에서 대구를 재발견하는 과정으로, 2·28의 현장이었던 대구의 주요 고등학교와 반월당 등 지역의 주요 공간을 둘러싼 역사적 재구성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2·28민주운동의 주역인 학생들에 대한 서사는 집단 지성이 형성되는 과정과 그 배경인 당대 대구 지역 고등학생들의 사회문화적 지평을 중심으로 구성될 수 있다. 1960년대 전후의 고등학교는 자발적인 집단 지성의 탄생지이자 사회적 정의를 실천하는 지성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1950년대 이후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전후 재건의 사회적 상황 속에서 여러 층위의 성격을 동시에 보여주는 존재들이었다. 특히 1950년대 고등학생들의 타자에 대한 인식은 그들의 집단정체성을 보여주는 주요한

지표였다. 당대 고등학생 집단은 또래에 대한 우월감과 가족에 대한 부채감, 전후 국가 발전에 대한 책임감 등을 집단적 정체성으로 하는 존재들이란 연구가 있다.²⁰⁾ 이는 타자에 대한 책임감을 통한 자기 정체성을 집단적 정체감으로 하는 시대적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 정체감은 사회적 활동과 실천을 위한 내적 동력이 된다. 스스로를 타자와 사회, 국가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당대 고등학생의 일상을 흐르는 정체감으로 작동한다. 특히 당대 대구 고등학생들은 지역에 내재된 전통적 국가관이나 책임감 등으로 인해 이러한 정체성이 더욱 강화되어 나타났을 것이다.

1960년대 전후 고등학생들의 타자에 대한 정체성은 집단적 모임 등을 통해 구체화되거나 실현된다. 당시 대구 고등학생들은 다양한 모임과 토론회를 통해 시국 문제 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역의 청년 지성들이었다. 정치 과잉의 시대, 야당도시로서 대구는 매일신문을 비롯한 지역 언론의 정권 비판 등이 한창 고양되었던 도시였다.²¹⁾ 대구가 전국 제1의 야당 도시가 되는 데 영향을 준 요인 중 하나는 해방 후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경쟁적으로 사회운동을 주도하면서 형성된 대구 시민들의 정치참여 의식과 높은 비판 의식이다.²²⁾ 해방에서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변화와 수난의 연속 속에서 대구는 한국전쟁 때 비점령 지역으로서 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정치참여에 적극 참여하는 비판적인 시민계층이 성장한 것이다.²³⁾

특히, 당시 대구의 고등학생들은 ‘사상계’ 등 종합교양지를 읽거나 시국 문제에 대한 토론과 논쟁을 통해 시대 상황에 관한 직간접적인 인식체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또한, 학도호국단 등을 통해 학원을 획일화, 軍

20) 유은지, 「1950년대 한국 고등학생들의 집단정체성에 대한 연구: 학생 잡지 『학원』의 「독자문예」를 중심으로」, 『한국교육문제연구』 48-1호, 2020, 85쪽.

21) 장주효, 『2·28민주운동 아카이브 구축사업』, 2·28민주운동사업회, 2016, 623쪽.

22) 경북대학교 대형과제단, 『근현대 대구, 경북의 지성과 운동 연구총론』 대구:정림사, 2005, 338쪽. 재인용.

23) 유명철, 「1950년대 전국 제1의 야당 도시는 대구(大邱)다」, 『국제정치연구』 20(2), 51쪽.

營化 하는 전체주의가 작동하던 상황에서 비판적 정치 의식과 사회적 이해를 가진 고등학생들이 등장하였다. 그들은 자발적인 사회봉사단체를 조직하는 등 스스로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활동을 전개하는 주체가 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새날동지회’이다. 대구의 ‘새날동지회’는 자발적인 학생 봉사단체로 당시 대구 고등학생들의 사회적 위상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²⁴⁾ 당시 자생적인 학생 조직은 다양하게 형성되었으며, 이는 당대 고등학생들의 사회적 관심과 인식의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모임으로 ‘새날동지회’는 그 창립 취지문에 시대적 소명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인간사의 혁명과 새 역사의 창조를 위해 바르게 보는 눈, 바르게 생각하는 마음, 깊게 가는 힘과 하느님의 섭리를 깨닫는 순결한 현명을 길러 이 역사에 부여된 민중의 짐을 기꺼이 짊어 기본정신을 둔다. 이렇게 하기 위해 현 단계로서 농촌활동에 중점적 역할을 하기로 한다.”²⁵⁾

취지문은 지식인으로서의 정신과 실천적 삶을 밝히고 있다. 역사적 사명을 다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인식을 2·28민주운동의 정신과 연결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2·28결의문에서 밝히고 있는 ‘우리는 배움에 불타는 신성한 각오’와 ‘순결한 이성으로써 지금까지 배운 지식을 밑바탕으로 하는 일장의 꿰기’ 등 선언의 토대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운동의 구호에서 말하는 ‘인류애’와 ‘자유’를 위한 결의에서도 그 정신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청년 지성의 정의 실현이라는 2·28 서사의 핵심은 ‘동방의 밝은 빛’이란 결의문의 표현으로 압축된다. 이는 당대 청년들의 존재론이기도 하며, 2·28운동의 정의 서사를 설명하는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하다. 타

24) 본 논문에서 언급하는 새날동지회의 예는 2·28민주운동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위한 것이 아니다. 당시 대구 고등학생들의 사회문화적 위상과 정체성 등을 구체적으로 살피기 위한 사례의 하나이다.

25) 장주효 글, 조혜정 기획, 『자유민주 그리고 삶의 작은 몸부림』, 정문출판사, 2018, 53쪽.

고르의 시에 등장하는 ‘동방의 횃불’은 한국을 상징한다는 뜻에서 당시 대중에 회자된 문구이다. 당시 고등학생들은 이 표현을 자신을 상징하는 언어로 여겼으며, 정치적 이해를 넘어 순수한 애국심을 보여주는 언어로 이해하였다고 한다.²⁶⁾ 이와 관련하여 2·28 당시 운동의 구호로 등장한 ‘학생을 도구화 하지 말라’는 운동의 당위를 상징한다. 특히, ‘학생을 도구화 하지 말라’는 구호는 당대 대구 지역의 대중적 정서이자 정치적 저항의 표현이기도 하였다. 1955년 9월 13일 자 매일신문에 게재된 최석채 주필의 사설 ‘학도를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는 필화 사건 이후 대구의 정신적 구호이자 지역 지식인들의 정치적 표현이 되었다. 즉 2·28의 구호는 당대 대구의 지식 지형 속에서 탄생한 것이며, 양심의 지적 표현이었다. 그러므로 ‘학생을 도구화 하지 말라’란 구호는 2·28운동 서사의 핵심적인 재료로서 2·28운동의 정의 서사를 보여주는 핵심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2·28민주운동의 두 번째 서사는 운동의 배경이자 주요 공간이었던 대구의 공간 서사이다. 2·28민주운동은 대구의 8개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의 집단 지성이 이루어낸 지역의 역사였다. 그러므로 2·28민주운동의 서사를 구성하는 핵심 공간 중 하나는 당연히 대구의 고등학교이다. 현재 관련 고등학교에 세워진 기념탑은 이를 기념한 것이다. 또한 각 고등학교에서 출발한 운동 행렬이 집결한 반월당은 2·28운동의 역사적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반월당은 대구 민주주의 역사의 현장으로서 그 의미를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다. 반월당은 1946년 10월 항쟁과 2·28민주운동, 이후 대구의 민주주의 운동 행렬이 집결한 상징적 공간이다. 그러므로 반월당을 중심으로 하는 대구 민주주의의 공간 서사를 구성하는 것은 2·28운동의 확장성과 지역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서사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기억의 서사는 기억의 현재성을 확보하는 전략 중 하나이다. 다시 말해 역사적 사건을 현재와 연결하는 서사적 장치가 필요하다. 앞서 살핀 2·28민주운동의 기억 서사는 말 그대로 정의의 서사

26) 장주효, 『2·28민주운동 아카이브 구축사업』, 2·28민주운동사업회, 2016, p.625.

다. 그러므로 대구의 주요 공간을 중심으로 정의의 서사를 구성하는 것은 2·28 공간 서사의 핵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V. 2·28민주운동의 기념 방식, 기억의 공유

2·28민주운동에 대한 현재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것은 앞서 말한 2·28 정신에 기초한 기억의 서사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다시 말해 2·28운동의 정의 콘텐츠를 구현하는 서사적 관점과 방향이 필요하다. 그것은 정의를 구성하는 이야기와 인물, 상황 등을 기반으로 콘텐츠가 기획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한편, 콘텐츠는 매체나 비주얼 환경, 구현의 방식과 조건 등을 고려하되 규모보다 콘텐츠를 구현하는 관점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정의 콘텐츠는 정의의 형식적 전시나 인물에 대한 신화적 기념의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 오히려 2·28을 관람하거나 기념에 참여하는 사람들 스스로가 구성하거나 재현하는 정의의 공유 방식이 필요하다. 공유의 기념 방식을 전제로 2·28운동의 기념 공간과 인물 콘텐츠, 전시 및 프로그램 콘텐츠 등에 대한 제안이 가능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념 공간 콘텐츠는 콘텐츠 구현의 기본이자 핵심이다. 현재 2·28민주운동 기념 공간은 기념회관, 참여 고등학교, 기념탑, 반월당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있다. 기념회관은 2·28운동에 대한 역사 교육을 중심으로 전시 콘텐츠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참여 고등학교에는 운동의 역사를 기념하는 기념탑이 조성되고 있다. 또한, 한때 2·28민주운동의 상징이었던 기념탑은 기념 비문과 함께 역사적 선언을 상징화하는 조형물로 남아 있다. 그리고 반월당에는 그날의 현장을 확인하는 표지석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의 기념 공간은 2·28운동을 일방적으로 홍보하거나 강조하는 전형적인 사건 중심의 메모리얼 방식을 택하고 있다. 당연히 관람자나 참여자는 대상화되어 있다. 심지어 운동의 참여 주역들조차 소재화된다. 그러므로 2·28의 역사를 지금의 시민들과

연결시키는 새로운 공유 기념공간이 필요하다. 2·28을 통해 정의의 역사를 관람객 스스로 구성하는 새로운 기념 공간 콘텐츠가 기획되어야 한다.

그 중 하나로 대구 민주주의 역사의 거점이자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반월당을 중심으로 하는 대구의 정의 공간 구축을 제안해 볼 수 있다. 대구의 반월당은 1946년 10월 이후 대구지역 민주 행렬의 집결지였다. 자연스럽게 시민들에게는 정의의 공간으로 심리화된 장소였다. 또한, 반월당은 대구의 근대문화가 집적되고 탄생한 곳으로서 지역 사회의 대중문화가 유통되고 생성되는 현장이다. 따라서 반월당은 대구 시민들의 정신적, 문화적, 사회적 중심 공간으로서 대구의 삶과 문화, 지역 민주주의 역사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라 할 수 있다. 2·28운동의 현장인 반월당은 대구의 정의를 기념하는 곳으로 장소성을 내재한 곳이다. 따라서 반월당은 2·28민주운동과 대구 민주주의 운동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반월당은 2·28이 특정 고등학교나 고등학생들의 역사를 넘어 대구의 역사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공간이다. 그러므로 대구 민주주의와 정의의 역사를 지역의 물리적 공간을 통해 확인하고 기념하는 장소로서의 반월당은 재구성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반월당 콘텐츠의 공간 범위는 대구부청(현 대구시청), 경북도청(현 경상감영공원), 매일신문사, 대구역, 대구백화점 등으로 확대된다. 2·28운동 당시의 경상감영과 매일신문사, 그리고 반월당 일대의 공간은 다른 민주운동의 현장과 겹치거나 연결되어 있다. 특히, 대구역과 대구시청, 경상감영공원과 반월당 일대를 연결하는 골목과 거리는 대구의 일상 속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등장한 곳이다. 지역의 민주주의에 대한 실천 의지와 정의적 행위를 추적하고 있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반월당 공간 콘텐츠는 반월당 일대의 거리와 골목의 콘텐츠이며 대구의 일상 속에서 획득한 정의의 콘텐츠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반월당 콘텐츠는 당시의 구호와 대중들의 목소리, 선언문

낭독 등을 통해 현장감을 극대화 하는 방식으로 구축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2·28민주운동의 대표적인 구호인 ‘학원을 정치도구화 하지 말라’, ‘정의는 살아있다’, ‘우리에게 인류애와 자유를 달라’와 1946년 10월 투쟁의 ‘쌀을 달라’, ‘노동권을 보장하라’, 그리고 4.19의 구호와 1987년 6월의 구호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구체적이며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콘텐츠이다. 특히, 과거 대구부청(현 대구시청)과 경북도청(현경상감영공원), 대구역, 대구경찰서(현 중부경찰서) 등은 반월당 정의 서사의 주무대이다. 반월당 일대의 주요 현장에서 만나는 그날의 구호는 대구의 일상에서 정의를 실감하는 콘텐츠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일상의 공간에서 만나는 구호나 결의문 등은 정의 서사에 생기를 제공하고 기억에 대한 살아있는 공유가 일어나도록 하는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다.

또한, 2·28운동을 상징하는 특정 시간에 2·28 결의문을 낭독하거나 관련 이벤트를 기획해 볼 수도 있다. 사례로 캐나다전쟁박물관 메모리얼 홀의 ‘햇살 콘텐츠’를 참고할 수 있다. 1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1918년 11월 11일 11시가 되면 전쟁박물관 메모리얼 홀에서는 큰 창문을 통해 무명용사 묘비에 햇살이 내려오는 이벤트가 펼쳐진다.²⁷⁾ 묘비는 1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와 벨기에 들판에 쓰러진 캐나다 병사 6,846명 중 한 명의 묘비이다. 역사적 사건이 한 사람의 묘비를 통해 구현되고, 이를 어루만지는 햇살은 관람자의 내면에 전쟁과 희생의 역사에 대한 공명을 불러 일으킨다. 이러한 기획은 2·28민주운동의 역사를 우리 모두의 기억으로 등치시키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2·28민주운동 콘텐츠의 두 번째는 인물 콘텐츠이다. 기존의 메모리얼 방식에서 인물 콘텐츠는 주요 인물의 신화적 재구성이 콘텐츠 전략의 핵심이다. 그러나 2·28민주운동은 타인과 사회에 헌신하고자 했던 당시 고등학생, 즉 집단 지성들 모두가 인물 콘텐츠의 주역들이다. 그들의 정의감과 실천이 2·28운동의 실제 동력이었으며, 당시 지역 사회 저변의 정의 실현에 대한 대중적 인식이 그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

27) 김정학, 『박물관에서 무릎을 치다』, 2020, 곰곰나루, 174쪽.

므로 2·28민주운동의 원동력이자 주체인 인물 콘텐츠는 당시의 고등학생을 비롯한 시민 지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2·28운동의 인물 콘텐츠를 시민 지성에서 찾는 일은 당시 대구를 구성하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다. 지역의 사회문화적 지평을 비롯하여 교육, 언론, 매체, 학교 공동체 등 집단 지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영역이 여기에 해당된다. 특히, 당시의 자발적 학생 조직이나 모임 등은 고등학생들이 지역의 집단 지성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콘텐츠가 될 수 있다. 학생들의 자발적 모임은 2·28민주운동의 정신을 형성하는 직접적인 역할을 했던 바 집단 시민 지성 콘텐츠의 핵심이다. 자생적 학생 활동을 통해 사회 정의와 책임감을 형성했던 학생들의 실체를 보여줌으로써 2·28민주운동이 특정 세력의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지역의 집단 지성들이 보여준 정의의 역사였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위의 콘텐츠들은 다양한 전시 콘텐츠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구현된다. 그것은 우선, 관람자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당대 학생들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기획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2·28운동의 배경이자 원동력이었던 학생자치 조직과 활동 등에 대한 역사와 과정을 소개하고, 고등학생들의 자치활동이 어떻게 사회적·정치적 정의를 실현하는 기반이 되었는지를 전시 교육하고 경험하는 콘텐츠를 기획해 볼 수 있다. 그리고 2·28운동의 주역이었던 당시 고등학생 개인의 삶을 만나는 과정을 설계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입장권에 새겨진 당시 고등학생들의 이름과 함께 그들의 삶의 역사를 만나는 공간 콘텐츠를 기획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인물 콘텐츠는 관람자나 참여자가 스스로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전이하는 콘텐츠이다. 집단 지성에 대한 이해와 역사를 통해 시민 지성으로서의 나를 발견하는 콘텐츠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물들에 대한 실감과 역사적 현장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시간을 거슬러 2·28운동에 참여한 주역들의 목소리를 통해 2·28에 대한 증언과 이야기를 듣는 공간을 구성해 볼 수 있다. 미국 ‘9·11메모리얼 박물관’의 ‘오디오 태피스트리’가 한 예이다. 9·11메모리얼 전시관은 어

뚝고 긴 회랑을 지나는 동안 417명의 증언으로 구성된 오디오 태피스트리를 만들어 ‘듣는 박물관’을 조성했다.²⁸⁾ 이를 통해 역사적 비극은 상기되고 관람자는 기억의 실감으로 역사를 다시 구성하게 된다.

인물 콘텐츠의 또 다른 하나는 사람들의 관계 콘텐츠이다. 앞서 이야기한 바대로 2·28운동은 학생들과 지역의 사회 지평이 만든 정의의 선언이었다. 그것은 곧 관계의 결과이다. 대구의 8개 고등학교가 연대하고 고등학생들의 교류와 관계로부터 2·28운동은 출발한 것이다, 고등학교 혹은 개인적 인연, 모임과 활동 등을 통해 형성된 관계는 운동을 설계하고 실천하는 핵심 동력이었다. 그러므로 2·28민주운동은 서로 다른 이름들과 존재가 만들어낸 관계의 콘텐츠이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와 모임, 개인과 집단 사이의 관계를 이름과 함께 배열함으로써 개별적 존재로부터 사회적 개인으로 재등장하는 콘텐츠를 기획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곧 관람자나 참여자와 그들을 연결시키는 관계의 현재성을 구현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뉴욕 ‘9·11메모리얼 파크’에는 희생자와 순직한 이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순서없이 나열된 것처럼 보이는 이 이름들은 사실 정교한 관계도를 기반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 공간을 설계한 건축가 마이클 아라드는 이름들 간의 관계를 찾기 위해 알고리즘을 만들고 무수한 이름과 관련된 자료를 토대로 그 현실적 관계를 찾아 이름들을 배치하였다고 한다.²⁹⁾ 그것은 삶의 관계를 통해 희생자들을 다시 삶의 현실 가운데로 다시 호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28 결의문과 선언문, 기념탑 비문과 구호, 시 등을 활용한 관람객 중심의 전시 콘텐츠는 자료를 활용한 기억 콘텐츠 중 하나이다. 결의문이나 선언문, 기념 비문과 구호, 시 등은 상징과 비유로 가득한 결의의 언어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징 언어들은 내용과 함께 이미지로 의미 전달이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상징이나 비유는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거나 확대, 전이함으로써 가치를 심화하거나 확장시키는 수사학적 방식들이다. 그러므로 2·28 결의문과 비문, 구호를 관람자나 참여자 중

28) 김정학, 앞의 책, 181쪽.

29) 김정학, 앞의 책, 182쪽.

심의 콘텐츠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언어적 상징 이미지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상징 이미지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상징물을 중심으로 하는 상황이 설정되어야 한다. 즉 결의문과 구호, 비문, 시 등은 2·28 운동의 상황 속에서 맥락과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다. 특히, 2·28 결의문이 작성되는 과정은 2·28운동이 집단 지성에 의해 실현되는 극적인 과정이다. 결의문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당시 주역들의 기억과 회고를 통해 대략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2월 28일 전날, 결의를 모은 각 고등학교 지도부들은 글솜씨가 있는 하청일(당시 경북고등학생 휴학생)에게 결의문 작성을 부탁하고, 이후 여러 차례 수정 끝에 새벽녘이 되어서야 비로소 결의문이 완성된다.³⁰⁾ 결의문에 대한 논의와 원고 작성, 검토, 그리고 당일 현장의 결의문 낭독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고등학생들이 느낀 불안감과 경계, 갈등의 상황은 2·28운동의 실감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집단의 의지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운동을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결의문을 전시 콘텐츠로 기획한다면 우선, 결의문의 준비 과정과 낭독의 순간을 배경 이미지를 확보한 뒤, 그 한가운데 결의문을 핵심 콘텐츠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결의문은 당시의 상황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조형 이미지 등을 통해 감정의 공유를 유도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관람자와 일정한 거리를 둔 조형물이 아니라 2·28의 현장을 입체적으로 느끼며 공감할 수 있는 조형 이미지가 필요하다. 참고로 중국 베이징의 루쉰 박물관 로비에 있는 육필 원고 조형물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박물관 로비 한 가운데 설치된 구겨진 원고지와 그 위에 펼쳐진 루쉰의 「광인일기」 육필은 루쉰 문학의 고난의 역사를 압축해서 보여준다.³¹⁾

2·28 결의문은 말 그대로 청년들의 정의에 대한 선언이다. 현재 2·28

30) 이대우, 「햇불을 밝혀라. 동방의 빛들아」, 『경북중고 제42회 졸업 30주년 기념문집』, 1991, 214~227쪽; 권준화, 「2·28의 산실」, 『경북중고 제42회 졸업 30주년 기념문집』, 1991, 244~246쪽. 참조.

31) 김정학, 앞의 책, 21쪽.

기념회관 로비 한가운데에 있는 햇불 조형은 결의문의 ‘동방의 밝은 빛’과 ‘햇불을 밝혀라’에서 그 선언의 이미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28 결의문은 당시 고등학생들의 정의감과 지성인으로서의 존재론적 고민이 문학적 감성을 통해 표현된 것으로, 고등학생과 정의라는 핵심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고등학생들의 정의를 향한 목소리’가 2·28 조형의 핵심 이미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불안과 경계, 갈등 속에서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고등학생의 이미지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다. 2·28 조형물을 통해 관람자 스스로 자신의 정의감을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그것은 2·28민주운동 콘텐츠 전략을 관람자와 참여자 중심으로 구축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2·28에 대한 대중적인 기억 프로그램도 기획해 볼 수 있다. 그 중의 하나가 ‘노가바(노래가사 바꿔 부르기)’ 콘텐츠이다. 당시 유행하던 대중가요 「유정천리」를 개사(改詞)한 일명 ‘노가바 사건’은 당시 고등학생들과 대중들이 보여준 정치에 대한 또 다른 저항의 방식이었다. 1960년 2월 16일 경북사대부고 1학년 교실 칠판에 등장한 노랫말은 전날 급사한 조병옥 박사를 추모하고 자유당과 이승만의 독재를 빗댄 내용으로 삽시간에 대중적으로 확산되었다. 이 사건은 동아일보를 통해 전국적인 이슈가 되는 한편, 정치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을 집중시킴으로써 2·28운동을 건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중가요를 통해 대중의 정치적인 목소리를 담은 ‘노가바’ 사건은 당시 고등학생들은 물론 대중들의 정치에 대한 보편적 인식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증거라 할 수 있다.

한편, ‘노가바’ 사건이 2·28운동의 대중성을 상징하는 사건이라면, ‘노가바’ 행위는 그 자체로 대중적인 콘텐츠로서의 활용도가 높다. 대중들의 기본적인 욕망 중 하나인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표현을 ‘2·28민주운동 노가바 만들기 과정’ 등을 통해 소개함으로써 2·28운동에 대한 체험 및 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해 볼 수 있다. 특히, 정의 관련 노랫말 만들기 등의 참여 활동을 통해 정의로운 역사 만들기에 관람자가 직접 참여하는 콘텐츠를 기획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28민주운동 콘텐츠 중 무엇보다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정의에 대한 교육 콘텐츠이다. 그것은 전시와 감상, 참여 활동과 교육을 연계하는 새로운 관람자 및 참여자 중심의 기획이어야 한다. 이 기획은 우선, 정의를 주제로 하는 질문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질문은 ‘우리에게 정의란 무엇인가’란 대전제를 중심으로 ‘누가 정의를 실현하였는가, 왜 우리는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가, 우리가 실현한 정의는 무엇인가, 정의롭게 살면 행복하나, 정의롭게 살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 정의를 약속한 적이 있는가, 우리는 어떤 정의로운 일을 하였는가, 정의로운 행동과 활동은 어떻게 하는가’ 등이다. 이는 정의에 대한 형식적 질문이 아니라 정의라는 개념과 관람자를 연결하고 참여자 스스로 정의를 구성하는 실천적 질문들이다. 또한 이 질문들은 자료 전시 혹은 디지털 이미지, 그림과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형태의 형상화를 통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관람자 스스로 정의적 실천에 접근하는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통해 관람자와 참여자는 정의를 추상적인 개념으로부터 나와 연계된 문제로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그러므로 이 콘텐츠에서 중요한 것은 질문과 교육, 전시와 감상을 넘어 관람자가 스스로 자신의 정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기획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의를 향한 나의 행위가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을 구성하는 것이다.

한편, 관람자 콘텐츠는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 구현될 수도 있다. 디지털 콘텐츠 참여자 및 관람자 중심의 콘텐츠란 점에서 시민 참여와 사회적 공유를 실현하는 콘텐츠라 할 수 있다. 디지털 전시는 소재와 주제의 특성 및 공간 이미지 등을 무한대로 확장하고 대중 접근성이 매우 높은 매체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를 통해 관람자 및 참여자의 대중적 기호를 동기화하고 그 과정에 감동 혹은 매력적인 스토리 등을 전면적으로 전시하거나 표현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2·28민주운동 디지털 전시 콘텐츠는 디지털 공간에서 실현되는 경우와 물리적 공간에서의 전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디지털 공간의 전시 콘텐츠는 웹사이트를 플랫폼으로 하는 문화지도형 서비스를 우선 구상해 볼 수 있다. 1960년 2월 28일을 핵심 공간으로 하여 당시의 상황을 당대의 공간 속에 재구성하는 것이다. 즉 당시의 역사적 사건

들과 인물, 생활사 등을 배경으로 정의의 서사를 문화지도 속에 구현하는 방식이다. 그 주요 내용은 1960년 2월 28일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 주요 사건들을 특정 공간 지도 위에 제시하고 사건 스토리를 함께 전개하는 것이다. 또한, 2·28민주운동에 참여한 고등학생들과 그 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여기에 입체적인 서사를 구성하기 위해 당시 고등학교와 지식인 사회의 생활문화를 배경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각 고등학교, 반월당, 운동을 숙의했던 장소 등을 둘러싼 운동 참여자들의 생활상과 운동의 과정을 통해 서사의 완성도를 높여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고등학생들의 참여 사연과 감동 스토리를 생활상이나 시대 상황과 비교하여 제시함으로써 내용의 입체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1960년 2월 28일의 상황을 1:10,000 축적 비율 지도 위에 펼쳐 보이는 것이다. 즉 디지털 2·28민주운동은 당시의 공간 실측과 기록물, 연구자료 등을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베이스이면서 참여자들이 2·28민주운동에 대한 입체적 이해를 서사물로 경험하는 인터페이스 역할을 함께 하는 것이다.

한편, 물리적 공간에서의 디지털 전시 콘텐츠는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선택하는 웹 콘텐츠와 달리 ‘선택과 배제’를 통해 기획된 연출을 전제로 한다.³²⁾ 2·28민주운동 기념회관 등의 내부나 벽면 공간에 의도적 연출을 통해 정의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다. 그것은 첫째, 2·28민주운동 기록물과 주요 공간, 인물 등 관련 자원들 중 정의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것들을 전시 인터페이스를 활용해 디지털 영상 콘텐츠로 보여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영상 콘텐츠는 기념관이나 기록관의 벽면에 2·28민주운동의 주요 공간과 인물, 참여 스토리 등을 슬라이딩 시스템을 통해 구현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영상 콘텐츠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영상 이미지로 전환시켜 보는 주는 것에 불과하다. 박물관 전시와 같은 정적인 관람을 극복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관람객을 대상화하고 있다.

32) 유동환, 2013, 『4의 공간과 전시 스토리텔링』, 『인문콘텐츠』 31, 2013, 205쪽.

그러므로 디지털 전시 콘텐츠를 참여 관람자 중심의 디지털 전시로 기획할 필요가 있다. 즉 참여자나 관람자가 몰입할 수 있는 감정적, 정서적 전시체험 콘텐츠나 관람자 활동 중심의 인터랙티브(interactive) 전시 콘텐츠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전시 콘텐츠는 관람자나 참여자 스스로 감동, 동의, 학습, 깨달음, 즐거움, 기억, 실행 등을 하도록 기획하고 연출하는 방식이다.³³⁾ 즉 전시 기획자에 의해 연출된 콘텐츠를 중심으로 기획자와 관람자(참여자), 전시 소재와 이를 둘러싼 스토리 등이 상호 교류하면서 전시 구조를 완성하는 것이다. 이는 전시 서사를 통해 이미 의도하고 구조화한 것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체험형 전시 콘텐츠는 관람자 개인이 2·28운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정의’라는 테마를 설계하거나 사회 정의 활동 과정에 일정한 역할을 경험하는 과정으로 콘텐츠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에 맞는 특정 경험 요소를 배치하고 이에 맞는 이야기를 제공함으로써 관람자의 주제에 대한 자기 동기를 체험 과정을 통해 설계하거나 구성하는 것으로 관람자 중심의 활동 과정을 기획하는 것이다.

한편, 인터랙티브 전시 콘텐츠 중 하나로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는 작품 제작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통해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디지털 데이터를 작품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디지털 인터페이스는 관람자의 활동과 행동 등을 설치 공간 속에 포함시킨다. 이러한 디지털 아트 작품들은 관람자를 참여자로 하여 얻을 수 있는 현실감을 핵심으로 하며, 관람자와 작품이 통합된 소통양식을 필수로 하고 있다.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는 제작자와 관람자의 구분이 모호한 '자아 구성'과 '경험의 창조'를 통해 작품에 관람자가 관계하는 것이다.³⁴⁾ 예를 들어 2·28운동을 상징하는 역사적 조형물 속에 운동의 주요 인물들과 함께 관람자의 이름을 새기는 미디어 아트를 통해 관람자가 주인공이자 기여자로서

33) 유동환, 위의 논문, 207쪽.

34) 석기원·남경숙, 「관람자 경험 중심의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에서의 공간적 지원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8, 2019, 125쪽.

참여와 공유의 관람 경험을 하는 것이다. 혹은 4면 인터랙티브 서라운드 스크린을 활용해 발자국이나 손도장 등을 통해 사회적 정의 활동에 참여하는 의사를 표시하면, 포토 아트와 프린팅 등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을 기획해 볼 수도 있다.

관람자 체험 디지털 전시와 함께 디지털 서비스가 관람객 중심 전시 프로그램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디지털 서비스는 디지털 콘텐츠의 또 다른 매력으로, 말 그대로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를 통해 관람자 중심의 전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일반 디지털 서비스는 컨셉(concept)을 구성하는 역할에 따라 알고리즘, 융복합, 하이브리드, 스마트, AI, 3D, 영상, 소리, 로봇, 리모트, 오토메이션 등 다양하며, 전시 콘텐츠로는 터치 스크린이나 파노라마, 디오라마(diorama), 드라마썸 등 영상물 등이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디지털 스크랩 북, 프로젝션 맵핑 (Projection Mapping)³⁵⁾, 인터랙티브 영상 등 관람자의 참여와 체험, 감동을 결합한 디지털 서비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프로젝션 맵핑(Projection Mapping) 등을 통해 기부의 과정을 실감하는 디지털 서비스도 기획할 수 있다. 프로젝트 파사드에 다양한 스토리와 영상물을 3차원으로 제공함으로써 관람자 및 참여자가 시각 스토리를 통해 정의 활동의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관람자 중심 정의 활동 디지털 서비스도 기획할 수 있다. 현재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단체나 인물, 사건 등에 관해 월별 혹은 계절별로 업데이트를 하고 직접 이메일이나 영상을 통해 응원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정의 문화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관람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은 2·28민주운동의 시민사회적

35) 프로젝션 맵핑(Projection Mapping)은 대상물의 표면에 빛으로 이루어진 영상을 투사하여 변화를 줌으로써, 현실에 존재하는 대상이 다른 성격을 가진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기술이다.[1] 기본적으로 프로젝션 맵핑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2D, 3D의 디지털 이미지 혹은 영상을 제작하거나, 사물의 실제 크기를 변환하는 소프트웨어와 프로젝터, 컴퓨터 등의 하드웨어가 필요하다.
https://ko.wikipedia.org/wiki/%ED%94%84%EB%A1%9C%EC%A0%9D%EC%85%98_%EB%A7%B5%ED%95%91 참조.

공유를 보다 직접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2·28민주운동은 민주주의의 역사이자 우리 시대의 기억이다.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기존의 방식은 관련 기록과 박물관(博物館), 상징물을 중심으로 하는 전시 콘텐츠가 주된 것이다. ‘역사를 기억하자’는 당위는 기억의 사회적 정체성을 실현하는 문화적 형식을 통해 구체화된다. 기억의 기념은 이러한 사회적 정체성을 구축하거나 표현하는 문화적 상징 행위 중 하나이다. 그런 의미에서 2·28민주운동 기념사업은 1960년 2월 28일에 대한 기억을 재료로 하여 특정한 인식이 실현되도록 기획한 문화적 상징 행위라 할 수 있다.

2·28기념회관은 2·28민주운동을 집단적으로 기억하는 현장으로서 2·28기념 전략에 의해 구성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 전략적 재현은 주로 기념관의 전시 콘텐츠를 통해 구현된다. 기념관에 활용되는 역사적 재료와 기억의 자원들은 전시 콘텐츠의 전략적 방향과 목적에 따라 재구성되고 상징화된다. 그 전략은 사건의 역사성을 홍보하는 한편, 이를 근거로 하는 특정 사회 권력을 이미지화하는 방식으로 활용되어 왔다.

2·28기념회관은 일종의 역사적 사건을 성전화 하는 전통적인 메모리얼 방식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2·28은 결코 역사적 성전도 영웅의 서사도 아니다. 말 그대로 정의를 향한 청년 지식의 순수한 저항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2·28민주운동의 기념 방식 또한 기존의 메모리얼을 방식을 넘어 새로운 기념 방식이 필요하다. 2·28민주운동과 현재의 삶을 연결하는 가치를 재발견하고, 그 가치를 중심으로 우리들의 삶을 위한 실천의 의미를 2·28민주운동에서 확보해야 한다. 그것은 곧 역사에 대한 기억의 공유 방식이다. 기억을 공유하는 기념의 방식은 관람자나 참여자 중심의 콘텐츠를 구축하는 것으로 실현될 수 있다. 특히 2·28의 정신인 정의에 관한 참여자 중심의 공간 콘텐츠를 구축하고 그 속에 당대의 고

등학생을 비롯한 시민 대중들에 대한 인물 콘텐츠를 설계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 시대의 정의 콘텐츠를 기획할 필요가 있다. 2·28 결의문, 노가바 사건, 비문과 구호 등은 참여자 중심의 정의 콘텐츠를 위한 주요한 재료이며 공유의 통로가 될 것이다.

관람자나 참여자 스스로 공유하고 공감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동기를 구성하는 콘텐츠가 필요하다. 2·28민주운동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진정한 방식은 2·28과 우리 시대를 관통하는 가치의 공유와 실천에 있을 것이다.

※ 이 논문은 2020년 11월 4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0년 11월 19일부터 12월 3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0년 12월 4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 경북대학교 대형과제단, 『근현대 대구, 경북의 지성과 운동 연구총론』 대구:정립사, 2005, 338쪽.
-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2·28민주운동 아카이브 구축사업-22인의 경험과 기억』, 2016.
- 김기봉, 『역사를 통한 동아시아 공동체 만들기』. 서울: 푸른역사, 2006.
- 김정하, 『박물관에서 무릎을 치다』, 2020, 곰곰나루, 174쪽.
- 김태일, 『2·28민주운동 아카이브 구축사업 보고서』,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2016. 6쪽
- 김태일, 「2·28햇불 60호 발행기념 좌담회」, 『햇불』 60호,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2015, 29쪽.
- 권준화, 「2·28의 산실」, 『경북중고 제42회 졸업 30주년 기념문집』, 1991, 244~246쪽. 참조.
- 문은미, 「관람자 체험을 고려한 메모리얼의 공간 표현 특성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1집, 2012, 373쪽.
- 석기원·남경숙, 「관람자 경험 중심의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에서의 공간적 지원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8, 2019, 125쪽.
- 신주백 「역사교과서에서 재현된 8·15, 망각된 8·15」, 2006, 정근식·신주백(편), 『8·15의 기억과 동아시아적 지평』, 서울: 선인, 27~70쪽.
- 유동환, 2013, 『4의 공간과 전시 스토리텔링』, 『인문콘텐츠』 31, 2013, 205쪽.
- 유명철, 「1950년대 전국 제1의 야당 도시는 대구(大邱)다」, 『국제정치연구』 20(2), 51쪽.
- 유은지, 「1950년대 한국 고등학생들의 집단정체성에 대한 연구: 학생 잡지 『학원』의 「독자문예」를 중심으로」, 『한국교육문제연구』 48-1호, 2020, 85쪽.
- 이대우, 「햇불을 밝혀라. 동방의 빛들아」, 『경북중고 제42회 졸업 30주년 기념문집』, 1991, 214~227쪽
- 장주효, 『2·28민주운동 아카이브 구축사업』, 2·28민주운동사업회, 2016, 623쪽.
- 장주효 글, 조해정 기획, 『자유민주 그리고 삶의 작은 몸부림』, 정문출판사, 2018, 53쪽.

- 정근식, 「기억의 문화, 기념물과 역사교육」, 『역사교육』 제97집, 2006, 282쪽.
- 태지호, 『독립기념관에 나타난 독립의 기억과 그 재현 방식에 관한 연구』, 2013, 146쪽
- 태지호·정현주, 「중국의 항미원조기념관을 통해서 본 한국전쟁의 기억과 정치적 함의」, 『한국정치학회보』 제48집 제4호, 2014, 297~317쪽.
- 하청일, 『2·28민주운동 결의문』,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 한지은, 「타이완에서 장소를 둘러싼 정체성과 기억의 정치」, 『문화역사지리』 제26권 제2호, 2014, 106쪽
- Cuche, D. 『La notion de culture dans les sciences sociales』. 2004; 이은령 역, 『사회과학에서의 문화 개념』. 서울:한울. 2009, 141쪽.
- P. Burke, “History as social memory”, in T. Butler, ed., Memory: History, Culture and the Mind, New York: Basil Blackwell, 1989, 77~96쪽.
- Edward W. Said, 김정하 옮김, 2008, 『저항의 인문학, 인문주의와 민주적 비판』, 마티, 46-47쪽.
- Rodrigo, Russell, 「Spatializing Memory: Bodily Performance and Minimalist Aesthetics in Memorial Space」, 『The Australian Council of University Art and Design Schools』, 2009
https://ko.wikipedia.org/wiki/%ED%94%84%EB%A1%9C%EC%A0%9D%EC%85%98_%EB%A7%B5%ED%95%91

Abstract

Remembrance and Commemoration of the February 28 Democratic Movement

Park, Seung-hee

This paper proposes a new method of commemoration for the February 28 Democratic Movement. Commemoration is a plan to publicly remember history and rediscover social and cultural values based on the identity of the group. In commemoration of the February 28 Movement, it is also a cultural act that strategically reconstructed the history of February 28, 1960 to be remembered by social multiple groups.

However, the current contents of the February 28 Memorial Hall and others are closer to the mythical Memorial method. The typical method of commemoration since modern times is to emphasize only events and specific figures through visual symbols such as monuments, memorial towers, sculptures and symbolic phrases. This is a way of promoting the historicity of events, while promoting the image of power in a particular society based on them. However, the value of the Feb. 28 movement lies in the resistance of student intellectuals toward democracy and justice. It is neither a historical holy book nor a hero's epic. It was literally the pure resistance of youth intellect to justice. In this sense, the commemoration method of the February 28 Democratic Movement also needs a new method of commemoration to

mean memory beyond the existing memory method. The contemporaries of memory are the contemporaries of value, and can be realized through the sharing of memories centered on value. Therefore, the method of remembrance should be a memorial of the value of calling historical memory.

In that sense, the commemoration of the February 28 Democratic Movement should consist of justice-value content. And avoid the formal display of justice or the method of mythical commemoration of the character. Rather, it should be a way of commemoration through the sharing of justice, which is organized or reproduced by those who watch or participate in the Feb. 28 commemoration. Based on this premise, visitors can propose commemorative spaces and collective intelligence contents of the February 28th Movement, and visitors-oriented exhibition contents and sharing programs.

keywords :

The February 28 Democratic Movement, Remembrance, Commemoration, Justice-value content, Memorial contents

